

내용 요약

페르시아어의 에저페는 강세가 없는 모음의 음가로 실현되며, 어휘와 어휘를 연결하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.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에저페의 분포와 에저페가 사용된 구문의 구조를 분석하였다.

먼저, 에저페는 동사구와 일부 전치사구를 제외한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. 이는 어휘가 가진 [+N] 자질이 에저페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. 후행하는 [+N] 자질의 수식어가 연속적으로 병합된다면, 에저페 역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.

이 논문에서는 페르시아어 에저페의 문법적 기능을 고려하여 에저페를 통사부 내의 구성성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, Mahootian(1993)의 제안에 따라 기능범주로서의 EzP를 설정하였다. 그러나 Mahootian(1993)의 분석은 부정관사가 붙은 명사가 에저페를 통해 수식어와 연결될 수 없는 자료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페르시아어 어휘범주와 기능범주의 어순을 일관되게 보일 수 없다. Mahootian(1993)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EzP를 핵-먼저의 투사범주로 가정하였으며, NP를 하나의 국면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에저페의 접어적 성격을 부각시켜에저페 구문에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에저페 구문을 분석하였다.